

박소희 리포트

가구 成形의 귀재, 찰스 & 레이 임스

아르네 야콥센, 제스퍼 모리슨, 필리프 스타크, 론 아라드, 마크 뉴슨, 찰스 & 레이 임스, 베르네르 판톤. 의자 디자이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거장들이다. 이 중 찰스 & 레이 임스 부부는 미국의 20세기 가구 디자인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며 아메리칸 모더니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올해는 찰스 임스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된 기념비적인 해다. 사진제공 인노바드

요즘 소위 ‘뜨다’ 하는 카페에 가면 빈티지 스타일의 가구가 믹스 매치되어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중에는 찰스 & 레이 임스의 의자도 어김없이 놓여 있다. 이들 부부가 디자인한 의자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와 있어 누구의 디자인인지 몰랐던 사람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온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앞선 디자인을 선보였는지 엿볼 수 있다. 가구 디자이너로 유명하지만 80여개가 넘는 필름을 제작한 제작자이기도 하며, 건축과 장난감·사진·패브릭 디자인까지 그 영역이 방대했던 찰스 & 레이 임스. 그들의 끊임없는, 즐겁고 진지한 고민 덕분에 라이프 스타일 전반이 발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찰스 임스를 ‘성형의 귀재’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합판·플라스틱·와이어·알루미늄을 구부려 인체에 편안하고도 생산하기 쉬운 대중적인 의자와 가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맨 처음 시도한 것은 합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상병을 위한 다리 부목을 인체의 굴곡을 고려해 합판을 성형해 제작하였고, 이후 찰스 & 레이 임스의 대표적인 합판 의자와 테이블 등의 기초가 되었다. 먼저 제작해 직접 앉아 보고 사용한 뒤 가구를 만들었기에 실험적이고 공학적이란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디자인의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문제의 한계는 무엇인가”라고 답했을 만큼 그는 디자인의 한계란 인간이 문제를 갖고 있는 한 무한하다고 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안을 찾는 과학자 스타일의 디자이너였다.

‘플라스틱’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값싼 소재? 맞는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소재가 확산되었을 당시 가구 디자이너들은 열광했다. 기존 나무처럼 깎거나 사포로 긁어 낼 필요가 없는, 성형이 가능한 소재였던 것이다. 게다가 저렴하기까지 했다. 이미 합판 성형 의자로 유명했던 찰스 & 레이 임스 부부는 다시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로 편안하고 대중적인 의자를 디자인하며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로 떠오른



몰트드 플라이우드 라운지 의자와 와이어 베이스 테이블이 조화를 이룬 공간.

다. 천성연분이란 바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건축을 전공한 남편과 순수예술을 공부한 부인. 철저한 실험정신을 지닌 남편 찰스 임스에 비해 아내 레이 임스(1912~88)는 보다 감성적이고 남다른 컬러 감각을 지녔기에 지금의 컬러풀하고 유니크한 작품이 탄생되었다고들 한다. 이들의 목표는 한결같았다. 아름다움을 위해 디자인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할까, 값싼 재료로 대량생산해 대중이 부담없이 사용할까’가 관심사였다. 새로운 마티에르를 사용하여 친편일률적이던 의자 디자인을 벗어나 군더더기 없는 모던 디자인을 선보였고 여기에 인체에 대한 연구로

유기체적 형태를 띠고 있어 의도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1940년 ‘인간친화적 가구 콘테스트(Organic Furniture Competition)’에서 합판 성형 의자로, 48년 ‘저가 가구 콘테스트(Low Cost Furniture Competition)’에서 섬유유리와 플라스틱 의자로 수상하며 그의 자식과 같은 가구들이 하나 둘씩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영구 소장된다. 이외에도 자신의 친구이자 유명한 영화감독인 빌리 와일더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한 ‘임스 라운지 체어 앤드 오토만(Eamse Lounge Chair and Ottoman)’도 소장되어 있는데 이 의자만은 개인을 위해 제작한 만큼 성공



행잇을.



와이어 베이스 의자.

한 남성성을 물씬 드러내고 있다. ‘잘 길들여진 1루수 글러브처럼 안락한 모양’이 디자인의 목표였다. 실제로 앉아 보면 안식처처럼 편안함이 온몸을 감싼다. 국내 가구 컬렉터에게 가장 사랑받는 ‘임스 체어’이기도 하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가구 디자인의 입문은 의자에서 시작한다. 의자는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적인 가구인 동시에 상당히 개인적인 가구다. 의자는 어떤 가구의 부속품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개별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감각적인 디자이너 의자에 눈길이 간다면 실용적이면서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찰스 & 레이 임스의 의자에 도전